

평화나눔의 시선

2025.07.04. | 제25-02호

우리는 어떠한 빛을 보고 있는가

핵무기와 핵발전이
내뿜는 빛은 ‘빛’이 아니다

최근 핵무기와 핵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각국의 갈등 심화 혹은 충돌이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전쟁의 양상은 각국의 군비 증강에 대한 목소리를 자극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북의 핵기술 발달에 따른 핵무장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을 보이는 우경화와 관련을 짓고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2022년 전면전으로 확산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꼽을 수 있다. 이 전쟁은 핵무기와 핵발전을 아우르는 핵기술 전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여기서 핵무기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핵발전 논의가 어떠한 측면에서 전쟁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 진영의 에너지 제재는 러시아의 수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문제는 서방, 특히 EU의 에너지 수입에서 러시아가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이 제한되면서 EU는 심각한 에너지 수급난을 겪게 되었다. 이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세계는 ‘에너지 안보’의 개념을 인지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 공급처 종속으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이때 제시되는 것이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이다.

기후변화 또한 주목할 요인이다. 산업화 이후 지구의 기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이를 지구의 기온상승으로 인한 현상으로 파악한다. 지구의 기온상승은 온실효과 때문이며 지구의 대기에서 온실효과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산화탄소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때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이다.

한편, 2020년대 이전까지는 핵발전에 대한 인류의 인식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과거 미국의 쓰리마일섬 핵발전소 사고로 핵발전에 대한 불신이 강해졌으며, 이후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그 위험성을 세계적으로 알렸다. 이렇게 이미 1980년대부터 핵발전 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게 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재생에너지가 주목받게 되었고 여러 국가에서 핵 발전을 축소하거나 정지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나 현재 시점의 기술로는 입지나 기상 등의 조건에 큰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량 감소와 에너지 안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유력한 방안으로 핵발전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살상’이란 개념이 함께 하기에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인접국인 일본에 투하된 핵무기의 위력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핵무기에 대한 공포를 갖게 할 정도로 잔혹했으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핵무기의 후유증들은 그러한 공포를 계속해서 현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발전은 조금 다른 맥락에 놓여 있다. 정부가 핵 발전에 ‘안전’과 ‘친환경’의 개념을 연결 짓는 상황은 대중이 핵 발전을 핵무기와 같은 기술의 결과물로 인식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핵발전과 핵무기를 아우르는 핵기술에 대해서 사회적 찬반이 명료하게 나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핵기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 교회에서는 핵기술에 대해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그에 반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이며 완성인 하느님의 창조 역사와 구원 역사를 부정”¹⁾하는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회에서 말하는 반핵론을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라 평가하며 비판한다. 즉, 종교의 교리 속에서 전개되는 반핵의 논리는 일반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도덕적인 가

1)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122항.

치를 표방한다 하더라도 물리적 조건들이 만들어내는 한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반핵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에 주목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교회는 왜 핵기술의 확산을 거부하는 것인가? 교회가 말하는 ‘종교적’인 논리는 일반적인 논리가 될 수 없는 것인가? ‘도덕적’인 논리는 현실적이지 못 한 것인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인간은 그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는 인간이 살아갈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인간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삶 속에서 나 혼자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아우르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에 바탕을 둔 ‘전제(前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공동선’을 추구한다. 인간은 함께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선의 목표는 집단과 구성원인 개인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 자기완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된다. 이때 안전하게 존재함과 이에 바탕을 둔 자기완성의 추구는 ‘모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즉, 공동선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하는 것이고, 공동선이 추구될 때 그 보장의 영역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선 안됨을 말한다.

교회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에 대해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동등한 권리와 의무와 존엄성을 지니도록 창조하시고, 형제자매로 함께 살아가도록 …… 모든 인간을 부르셨”²⁾다고 말한다. 교회가 말하는 ‘형제애’는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인간의 근본적 속성에 대한 성찰을 통해 만들어지는 관계성이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제애와 공동선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은 변화하지 않는다. 종교라는 울타리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인간이라는 범주 속에서 같은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모든 형제들, 5항.

핵무기는 ‘공포의 균형’을 야기한다. 인간이 역사 속에서 확인한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은 공포의 대상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운 정도의 강력한 무력을 가진 것과 같기에 공포에 바탕을 둔 일시적인 ‘보호’가 가능함을 강조한다. 보호를 강조하면서 인간을 위협하는 공포를 가리고 있다. 이는 핵발전 또한 마찬가지이다. 적지 않은 핵발전 사고들을 통해 세계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게다가 핵발전과 핵무기는 근본적으로 같은 기술적 기반을 가지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한 이해는 더욱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핵발전이 가진 강력한 효율성만을 강조한다.

“핵무기든 핵발전이든 핵기술은 그 자체로 인간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공포의 균형’ 속에서 어떻게 집단이든 그 구성원이 자기완성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³⁾ 인간은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받을 때 공포를 느낀다. 핵기술이 야기하는 공포 또한 인간의 생존 위협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이 지속적인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포를 야기하는 핵기술은 근본적으로 공동선과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진다.

교회는 ‘패거리들’의 논리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세상, 인간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적 관점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은 전 인류가 공유하는 가치이며, 교회는 그 가치의 뿌리가 하느님에게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가치 준수의 준엄함을 더욱 강조하는 것일 뿐이다. 교회에서 말하는 핵기술에 대한 경계가 어떠한 측면에서 ‘종교적’이기만 하다고 비판받아야 하는 것인가? 인간 존재의 안전한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왜 특정 집단의 가치 추구 행위로 매도되어야 하는가?

“만일 초월적 진리가, 인간이 그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그 초월적 진리가 없다면, 사람들 간에 의로운 관계를 보장해 주는 확실한 원리는 없다. 계급, 어떤 대중 집단, 민족의 이익은 필연적으로 이들이 서로 대립하게 만든다. 만일 초월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권력의 힘이 우세해지며, 각자는 다른 이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과

3)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124항

자기 의견을 관철하고자 가지고 있는 수단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 든다.”⁴⁾ 도덕적 가치와 공동선으로 향하도록 이끄는 초월적 진리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덕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와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암묵적 법칙이다. 인간이 존재할 수 있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주는 법칙들이다. 교회의 핵기술에 대한 경계의 시선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곧 도덕이 추구하는 바와 같다. 핵기술이 가지고 있는 비도덕성, 인간의 존재함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왜 현실적이지 못한 것인가?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은 어떠한 논리 속에서도 합리적일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의 현실성은 곧 인간의 안전한 존재함과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이다. 핵기술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현실성은 특정한 집단들, 국가들 사이의 대립을 상정한 조건들이기에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다. 핵기술에 대한 경계의 시각은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들을 넘어선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에 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기술을 경계하는 교회에 대한 비판은, 교회를 넘어 인류 전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모순적 주장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핵기술과 관련하여 “복잡하고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들과, 이를 경제적 이윤 창출의 기회로 삼는 기업인들, 정치권력의 도구로 삼는 정치인들, 그리고 자본의 영향력에 포섭된 언론인들은 강력한 경제·정치·사회적 이익의 카르텔을 구축하고 다수의 시민을 사회적 약자로 만든다.”⁵⁾ 결과적으로 핵발전과 핵무기는 사회적 약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명한 결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나 핵발전과 같은 핵기술을 긍정하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핵발전 비율을 더욱 늘려야 한다면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주장하고, 안보를 외치며 핵무기 보유를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의 기저에는 ‘효율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시장의 자유와 효율성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 운영된다면 이러한 사람들(장애인, 몹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⁶⁾

교회는 핵기술과 관련한 논쟁 속에서 반핵의 입장을 꾸준히 표명해 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말하는 주장이 핵기술을 추구하는 근거들에 대한 반박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사회적 토론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핵발전의 안전성, 방사선 관리 기술의 신뢰성, 핵발전소 관리 및 해체 기술의 신뢰성 등은 모두 합리적

4) 모든 형제들, 273항.

5)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132항.

6) 모든 형제들, 109항.

반론을 통해 부정되었다. 핵발전은 안전하지 않음이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방사선 관리 기술의 낮은 신뢰도나 핵발전소 관리 및 해체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핵발전의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는 주장과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 또한 이미 많은 사례와 논리를 통해 반박되고 있다.

문제는 핵기술에 대한 논의의 장 자체가 ‘패거리들’의 논리 위에 성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핵기술을 통한 이익 창출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뭉쳐져 있는 ‘패거리들’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핵기술을 긍정하는 여러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판 위에서는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만이 이웃으로 여겨진다. ‘이웃’이라는 단어는 모든 의미를 상실하고, 특정 이익을 추구하고자 동업자 ‘패거리들’만이 의미를 지니게 된다.”⁷⁾

우리는 어떠한 빛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과거 예수님 시대의 사회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의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웃’이라는 말은 보통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우리에게 가까운 이들인지 자문해 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웃이 되라고 요구”⁸⁾하셨다. 이는 곧 이웃과 함께 이웃을 위해 살라는 것과 같으며, 공동선을 추구하라는 의미로 귀결된다. 공동선의 추구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하느님의 모습을 본따 하느님이 직접 만드신 인간들이기에 이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존엄함에 대한 종교적 전제이다.

하느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주는 빛을 잘 알고 있다. 종교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간을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빛이 어떠한 것인지 본능적으로 안다. 핵기술이 뿜어내고 있는 그 인위적인 빛들은 인간을 인간답게 존재하게 만드는 충분한 빛이 아니다. 이는 어떠한 논리가 펼쳐져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인간이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존재하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핵기술은 인간을 위협하는 공포스러운 것일 뿐이다.

우리가 ‘패거리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만들어 놓은 논리 위에서 휩쓸려 다닐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가 어떠한 빛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END]

7) 모든 형제들, 102항.

8) 모든 형제들, 63항.